

보도자료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s://kihasa.re.kr>

배포일시	2024년 6월 24일(월)
보도일시	즉시
매 수	총 5매 (본문 3매, 웹초청장 2매 포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존엄한 죽음’ 주제로 2024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개최

- 6월 25일(화) 오후 1시~6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9회 콜로키움 행사 열려
- 존엄한 죽음에 관한 사회정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발표와 심층 토론 마련해
- 『보건사회연구』 우수논문 시상식 함께 진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강혜규, 이하 보사연)은 오는 25일(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4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은 2016년부터 연 1회 개최되고 있는 학술 행사로, 한국 사회 보건·복지 분야가 당면한 과제를 발굴하여 이슈를 공론화함과 동시에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우리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로, 존엄한 죽음과 이에 대한 사회정책의 접근을 논의한다.
- 행사 1부는 이다미 부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축하 행사와 우수논문 시상식을 진행한다. 주은선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의 개회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 축사 후에는 우수논문 시상이 이어진다. 보건 분야에서는 ▲박병선·이선영 (AUDIT-K 척도의 요인구조 및 측정불변성 검증: 내포 모형 (nested) RMSEA_D 비교를 위한 지수의 활용을 중심으로)이 수상할 예정이다.

○ 사회 분야에서는 ▲최진희(코로나19와 가구소득 불평등 기존 : 소득보장제도
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중심으로)가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 행사 2부는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된다. 서울여자대학교 김진석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경희 박사(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한국사회에서의 존엄한 죽음’ ▲김대균 교수(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Medicalized death, 우리 시대의 흔한 죽음’ ▲김정희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 이어 ▲김명희 전 원장(前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서이종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숙량 교수(중앙대학교 간호대학)가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에는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 및 참석자 전체가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 주은선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은 “존엄한 혹은 존엄하지 못한 죽음은 한 사람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만들어 낸다.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존엄한 죽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존엄한 죽음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함께 해 주시길 바

란다.”고 말했다.

- 보사연 강혜규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콜로키움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콜로키움이 존엄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정책적 접근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웹 초청장 1부.

2. 행사 자료집 1부 (별도 첨부). 끝.



초청의 말씀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가 6월 25일에 제9회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존엄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엄한 죽음과 존엄한 삶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반대편 끝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양 끝이 이어져 하나의 고리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의 존엄한 죽음은 많은 이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존엄한 혹은 존엄하지 못한 죽음은 한 사람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과 여럿으로 구성된 사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존엄한 죽음을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사회정책의 접근을 논해 보고자 합니다.

1981년에 창간된 역사 깊은 학술지인 『보건사회연구』는 2016년부터는 연 1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심층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술지와 학계가 여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2024년 콜로키움에서는 존엄한 죽음에 관한 다양하고도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 주실 여러 발표자 및 토론자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콜로키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이번 콜로키움 역시 존엄한 죽음의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우리 학술지와 여러 선생님들이 이를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다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께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25일에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1부 우수논문 시상식 사회 이다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30~13:50	개회사	주은선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
	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시상	우수논문 시상 우수논문 선정 과정과 평가 / 우수논문심사위원장
13:50~14:00	휴식	
2부 주제 발표 및 토론 좌장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좌장 인사	
14:00~15:40	주제 발표 (각 30분)	1. 한국사회에서의 존엄한 죽음 정경희 박사(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2. Medicalized death, 우리 시대의 혼란 죽음 김대균 교수(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3.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은 무엇인가? 김정희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15:40~16:00	휴식	
16:00~17:50	지정토론 (각 15분)	1. 김명희 전 원장(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2. 서이종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3.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장숙량 교수(중앙대학교 간호대학)
	자유토론 (50분)	참석자 전체
17:50~18:00	정리 및 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S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문의 |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044-287-8364, editor@kihasa.re.kr